



---

# 민사법 답안지 작성방법 특강

---

이상민 교수(변호사시험 및 학생 상담 업무)

2023. 2. 16.

# 목 차

- 01 법학적 글쓰기의 목표
- 02 IRAC?
- 03 민법 답안 작성 방식
- 04 형법 답안 작성 방식과의 비교
- 05 결론



# 1. 법학적 글쓰기의 목표

## ● 생각해 볼 의문

Q1) 기본서 내용을 모두 비밀번호 외우듯이 외우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Q2) 답안 1면을 작성하기 위해 암기해야 하는 판례 문구는 몇 줄?

Q3) 좋은 답안지를 쓰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 1. 법학적 글쓰기의 목표

- 소설, 영화와 법학 답안지의 공통, 차이점

소설, 영화

- 줄거리를 통한 감동
- 유니버스(세계관) 속에서의 문제 해결

법학답안

- 문제(딜레마) 상황의 해결
- 법률(rule)에 근거한 결론



## 2. IRAC?

### ● 법학 글 구조(답안,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

- Issue : 문제되는 사안의 쟁점을 간략히 언급
  - Rule : 사안에 적용되는 **법 내용(판례, 조문, 학설 등)**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만 공부)  
(하나의 내용을 3줄 이상 쓰기는 어렵고 효율도 적음. 핵심 내용을 답안 쓸 정도만 정리)
  - Analysis : 해당 사안에의 적용
  - Conclusion : 결론
- >R을 제외한 I, A, C의 영역은 **암기 X**



### 3. 민법 답안 작성 방식

#### ● 민사법 법률관계와 이에 대한 해결 순서

Q) A는 B로부터 1억 원에 X아파트를 샀는데, X아파트에 물이 샌다. A의 B에 대한 청구권은?

1) 당사자의 지위(매수인? 채권자?)

2) 적용되는 법률관계(매매 담보책임? 채무불이행? 착오취소? 사기?)

3) 각 당사자별 청구권 및 그 효과(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해제? 취소 부당이득 반환?)

- 답안 작성은 위 내용을 고려하면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 내용 기재가 핵심
- 각 쟁점 별 답안에 기재할 내용 정리 -> 적용 가능 여부 확인(사안에의 적용) -> 정리한 내용을 답안에 현출





### 3. 민법 답안 작성 방식

#### ● 민법 답안지 기술 순서

1. 사안의 정리(분량에 따라 생략 가능)
2. 법률관계 정리(당사자, 사실관계 중심)
3. 청구권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기재(ex 매매 하자 담보책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4. 각 요건에 대해서 문제되는 쟁점에 대한 판례(혹은 학설) 요약 기재
5. 사안에의 적용
6. 결론 (분량에 따라 사안의 적용으로 대체하거나 생략 가능)



### 3. 민법 답안 작성 방식

#### ● 법학 글 구조(답안,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중략)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점유취득시효 요건사실

1) 20년간 점유  
(나머지 요건사실은 법률상 추정에서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

\*나머지 평온, 공연, 선의 점유는 민법의 규정(민법197조)에 따라 추정



# 3. 민법 답안 작성 방식

## ● ● 답안 작성 방식 -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답안

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

○ 결론 - 청구기각

○ 판단의 근거 -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은 1) 20년의 점유계속사실이며, 자주·평온·공연한 점유사실로 점유계속사실(제198조)과 자주·평온·공연한 점유사실(제197조)은 추정되므로 20년 점유사실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점유기간 동안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의 임의선택이 가능하다고 판시함.

•사안은 점유기간 동안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병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병은 1998. 5. 5.을 기산점으로 주장하였으므로 2018. 5. 5.에 점유시효취득이 완성된다. 따라서 2차 변론기일 2018. 8. 8. 이후에 변론이 종결될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일단 성립된다.

•사안에서 갑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응소하여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하였으므로 답변서 제출일인 2018. 3. 20.에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丙은 취득시효가 중단되더라도 갑의 답변서 진술일인 2018. 5. 10.에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해 재판상 청구의 경우 소장 제출 시에 시효중단되는 것과 같이 응소도 권리주장이 담긴 답변서 제출 시에 중단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안에서 취득시효완성일인 2018. 5. 5. 이전인 2018. 3. 20.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병의 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 2. 당사자의 법률관계 정리

### 3. 청구권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기재

1) 20년의 점유계속사실이며, 자주·평온·공연한 점유사실로 점유계속사실(제198조)과 자주·평온·공연한 점유사실(제197조)은 추정

### 4. 요건에 대해서 쟁점에 대한 판례 요약

\*점유기간 동안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의 임의선택 가능  
\*시효중단 여부에서 응소도 권리주장이 담긴 답변서 제출 시에 시효 중단됨

✓ 빨간색 부분만 암기 사항, 나머지는 암기x  
각 쟁점별 판례를 1 ~ 2줄 내외로 정리하면 충분



## 4. 형법 답안 작성 방식과의 비교

### ● 비교 대상으로 형법 작성 방식

- 형총 : 학설의 비중 매우 높음. 행위자(범죄를 저지르는 자)의 행위에 대한 이해가 중요  
->인간의 행위를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순으로 구분한 것이 형법의 관점
- 형각 : 각 죄별 **구성요건 해당성의 차이**, 죄에 대한 이해(ex)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 절도, 특수강도의 차이는?)
- 행위자 별 죄책에 집중하여 학습, 답안 또한 죄책에 집중하여 기술



# 4. 형법 답안 작성 방식과의 비교

## 민법/형법 답안 비교

### 민법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판단

- 부당이득반환청구는 1) 법률상 원인 없을 것 2) 이익 3) 손해 4)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민법 제741). 여기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사안에서 병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창고에서 물건을 빼고 열쇠로 잠겼으므로 실질적 사용수익을 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음.

### 형법

\*살인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및 개괄적 고의의 인정 여부

- 미필적 고의의 의미에 관하여 1) 결과발생을 승인하는 **용인설** 2)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는 **개연성설** 3)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가능성설** 등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C가 기절한 당시 C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매장하였는데, 실제로 C는 질식사한 경우에 살인에 대한 개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1) 제1행위가 제2행위에도 개괄적으로 미치는 하나의 고의기수가 성립한다는 개괄적 고의설 2)이는 객관적 귀속의 문제라는 객관적 귀속설 3) 미수와 과실의 실제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예견된 사실이 실현된 것으로 피고인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사안의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을에 대해서는 1, 2행위의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살인죄가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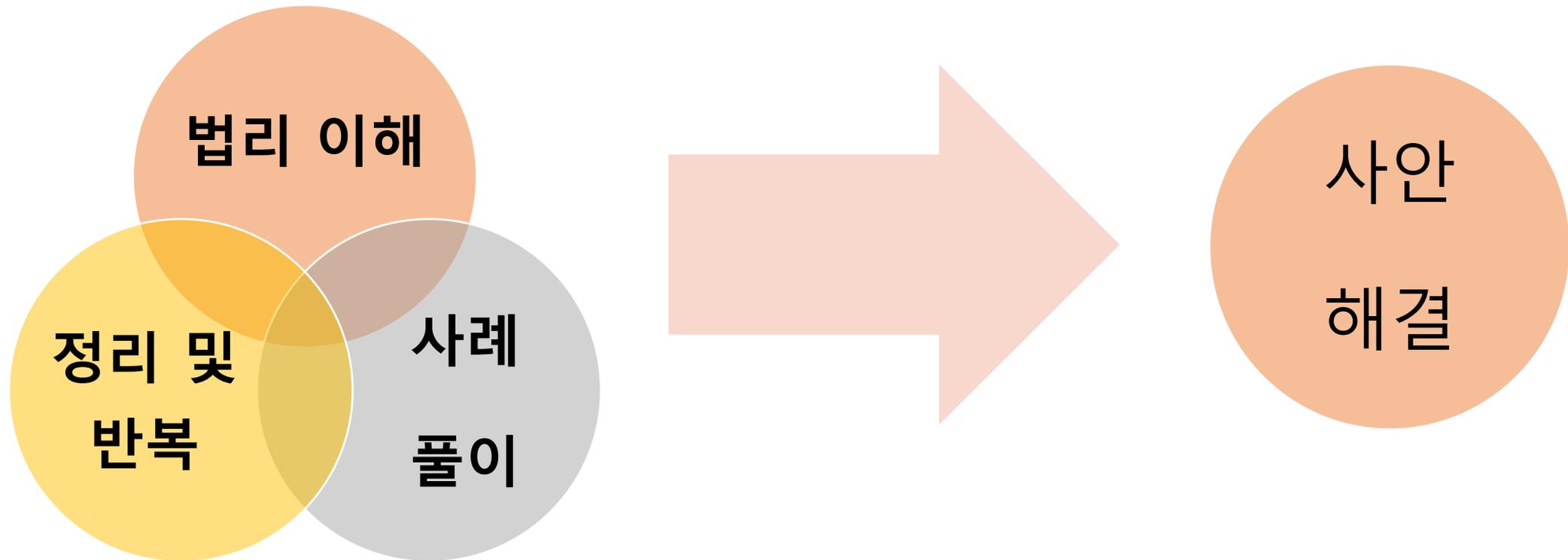
## 5. 결론

- 이해 및 답안에 대한 현출의 단계 예시(민법)



## 5. 결론

- 요약 - 좋은 답안 작성 방법이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신법 341호

(lsm775@korea.ac.kr)

